

개별정서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김 송 이	엄 진 섭	노 은 여	유 성 은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University of Notre Dame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어 정서단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별정서 요인들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정서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한덕웅과 강혜자(2000)가 수집한 834개의 단어목록의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와 한덕웅과 강혜자(2000)에서 도출된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과 경험빈도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146개의 초기단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정서단어 선별을 위해 10명의 대학원생들이 정서단어 카드를 사용한 유사성 분류과제를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도출된 11개의 요인 중 사랑/호감,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친밀감 요인 세 개를 제외하고 기쁨, 경멸/혐오, 슬픔, 수줍음/수치심, 공포, 죄책감/자기혐오, 성취감, 화로 분류할 수 있는 8개 요인을 대표하는 단어로 구성된 35개의 한국어 정서단어를 최종 선별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선별된 정서단어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345명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35문항으로 구성된 개별정서척도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 차별적 정서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 단축형 행복척도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죄책감/자기혐오, 즐거움, 화/경멸/혐오, 공포, 성취감, 수치심/수줍음, 슬픔의 7요인 구조가 자료와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35문항으로 구성된 개별정서척도가 7개의 개별정서 요인들을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함을 밝혔다.

주요어 : 개별정서척도, 신뢰도, 타당도, 정서구조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유성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내수동로 52, Tel: 043-261-3612, E-mail: syou@chungbuk.ac.kr

정서 이론들을 살펴보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 정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정서 경험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Scherer & Wallbott, 1994). 정서경험의 문화적 보편성에 관한 주장은 기쁨, 슬픔, 화, 공포, 혐오, 놀람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이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연구들로부터 출발하였다(Ekman, Sorenson, & Friesen, 1969; Izard, 1977). 하지만, 동일한 정서라도 문화에 따라 표현되는 언어,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정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각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Watson, Clark, & Tellegen, 1984).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용되어 온 자기 보고식 정서척도들은 대부분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정서척도들을 번안, 타당화한 것이다. Watson 등(1984)은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정서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한 예로, 한 문화권에서 적절하게 전체 정서단어를 대표하는 표본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가 다른 문화권에서의 정서경험을 대표하는 적절한 표본단어라고 장담할 수 없고 각 문화의 고유한 정서표본 단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주요한 정서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정서경험이라도 이를 표현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정서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정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정서간의 관계나 정서의 기능 및 구조에 있어서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쾌-불쾌 또는 긍정-부정 정서의 2요인 구조가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Scollon, Diener, Oishi, & Biswas-Diener, 2004, 2005; Watson, Clark, & Tellegen, 1984), 이와 같은 정서 2요인 구조의 문화적 보편성이 이들 구조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서들의 문화 내 기능이나 구조, 또는 개별 정서들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선행연구들은 문화에 따라 같은 정서라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빈도가 다르고 정서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Bagozzi, Wong, & Yi, 1999; Scollon et al., 2004, 2005). 예를 들어, 미국의 아시아 계열 대학생은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들에 비해 자긍심(pride)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은 반면 죄책감(guilt)을 경험하는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collon et al., 2004), 자긍심이 걱정, 죄책감 등의 부정 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Scollon et al., 2005). 이는 독립적인 문화인 서양 문화권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독립적이거나 한 차원 내에서 양 극단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서로 상관이 없거나 반대 상관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동양 문화권과 같이 상호 의존적인 문화권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Bagozzi et al., 1999).

이와 같은 현상은 동양 문화가 개인주의 보다는 타인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Scollon et al., 2004). 즉, 자긍심이라는 정서는 나와 남을 구별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개인주의적 의식과 자기고양을 증진시키는 정서인 반면 죄책감은 부정 정서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등 타인과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에서의 기능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Watson 등(1984)은 그들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와 유사한 정서 척도를 일본어를 기반으로 개발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정서 척도를 개발하고 문화 간 정서 구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크게 문화 내(within-culture)와 문화 간(cross-cultural)의 두 단계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문화 내에서 사용되는 정서 단어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서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유사성 분류과제를 실시하고 주성분 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정서단어를 사용하여 문화 내 정서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중 언어자들에게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정서 단어가 적힌 카드와 다른 언어(예;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척도에서 사용된 정서 단어가 적힌 카드를 주고 동일한 정서를 표현하는 정서 단어들을 언어에 상관 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한 후 카드 분류결과를 주성분 분석하여 문화 간에 동일한 정서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Watson 등(1984)이 제안한 문화 내의 정서 척도 개발 방법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두 개의 정서 척도의 구조 뿐 아니라 동일한 정서요인 내에서의 내용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국어 기반 정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번안 오류나 원 척도의 정서단어와 번안된 정서단어의 쓰임새가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의 정서 형용사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연구들에서도 문화에 따른 언어의 쓰임새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는 ‘excited’를 ‘흥분된’으로 번안하였는데 원 척도에서 정적 정서로 분류되었던 흥분된(excited)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에 중복으로 부하되었다. 이는 미국문화에서 ‘excited’란 단어는 보통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흥분된’은 기쁘고 신나는 일의 표현이자 화나 분노의 표현으로도 쓰이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어 어휘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구조와 차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강혜자, 한덕웅, 1994; 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이만영, 이홍철, 1990; 이준용,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서에 대한 차원적 접근에 기반하여 한국인의 정서구조와 차원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들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정서어휘의 수집방법과 단어 선별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초기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만영과 이홍철의 연구(1990)에서는 자유응답 방식을 통해 정서 단어들을 추출하였고,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사전만을 기반으로 정서 단어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후의 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출처들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서 단어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

에서는 책, 신문, 잡지, 국어 교과서, 희곡 및 시나리오 등에 사용된 단어들에 대한 빈도 조사결과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에서 구성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빈도’(서상규, 1998)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434개의 최종 감정단어 목록을 보고하였고, 한덕웅과 강혜자(2000)는 국어대사전,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서 단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정서단어 수집을 위한 설문연구결과의 세 가지 출처를 바탕으로 834개의 한국어 정서단어를 수집하여 각 단어의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과 경험빈도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과 강혜자(2000)가 수집한 834개의 정서 어휘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정서단어 목록은 가장 다양한 출처를 통해 단어들을 수집하여 폭넓은 범위의 정서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정서 어휘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한덕웅과 강혜자(2000)는 28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단어의 정서 단어로서의 적절성과 경험빈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여 결과를 각 단어별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가 본 연구에서 단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한국인의 정서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정서의 차원과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강혜자, 한덕웅, 1994; 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등, 1993; 이준웅 등, 2008). 국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쾌-불쾌의 1차원 구조(안신호 등, 1993)에서 부터 쾌-불쾌와 타인초점-자기초점의 2차원 구조(박인조, 민경환,

2005), 쾌-불쾌, 흥분-침잠, 긴장-이완의 3차원 구조(강혜자, 한덕웅, 1994), 쾌-불쾌를 상위차원으로 한 위계적 차원구조(이준웅 등, 2008) 등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가장 일관적으로 보고된 차원은 쾌-불쾌 차원으로 이 차원은 국내의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보고된 반면 활성화 차원을 비롯한 다른 차원들은 결과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서는 쾌-불쾌 차원과 더불어 다른 차원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적어도 2차원 이상에서 정서의 구조를 파악해야함을 시사한다. 이는 정서의 구조가 긍정, 부정의 두 가지 보다는 그 이상으로 구별해야함을 의미한다. 군집분석을 사용한 연구들을 보면, 문항 수만큼의 개별정서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정서로 묶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묶는 과정을 중지하고 개별정서를 파악하느냐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다. 즉, 개별정서의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반면에 요인분석은 항목들 간에 몇 개의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군집분석보다 더 잘 발달해 있으며, 각 요인과 문항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도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개별정서의 수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Watson 등(1984)이 채택했던 요인분석이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서척도로는 홍창희(2004)의 ‘한국 정서경험척도’가 있다. 홍창희(2004)는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결과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이 5점 이상이고 경험 빈도가 4점 이상으로 평정된 단어 143개를 추출하여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단어의 쾌-불쾌 차원을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결과, 평정 점수가 4.5점 이상인 단어를 쾌 단어로 3.5점 이하인 단어를 불쾌 단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63개 정서 단어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20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정서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서 단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의 연구에서는 비록 정서 단어로서의 적절성이 5점 이상인 단어들을 선정하였지만 표집된 단어 중에는 기분이나 정서보다는 생각, 성격, 신체상태, 행동을 묘사하는데 더 적절한 단어들도 포함되어 정서 단어로서 적절함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감명 깊다’, ‘부담스럽다’와 같은 단어들은 생각으로, ‘상쾌하다’, ‘답답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신체 상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경험 빈도가 높은 단어들만을 선정할 경우 경험 빈도는 낮지만 범문화적인 기본 정서에 속하는 정서단어가 제외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치스럽다’, ‘혐오스럽다’, ‘경멸감’과 같은 단어의 경우 범문화적인 기본정서이지만 경험 빈도가 낮아 홍창희(2004)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단어 선정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쾌-불쾌 차원을 평가하게 하여 중간 점수를 받은 단어를 제외시키는 것은 정서의 2요인 구조를 유인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어가 기분, 생각, 성격, 신체상태, 행동 중 무엇을 묘사하는 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경험빈도는 사전적 동의어

가 있을 경우에만 빈도가 낮은 순으로 단어를 제외시키는 기준으로만 사용하였다. 셋째, 쾌-불쾌 차원을 평가하지 않고 한국문화에서 정서단어로서 적절하다고 평정된 모든 단어를 포함시켜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정서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류 중 하나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Scollon 등(2005)은 정서를 측정할 때 제시하는 기간이 실제 정서경험보다 암묵적인 믿음을 측정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서측정은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며칠’의 기간을 제시하고 그 동안의 정서경험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참가자로 하여금 회상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험이 아닌 긍정-부정 정서가 서로 반대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collon et al., 2005). 이와 같은 측정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또는 오늘’ 느끼는 정서경험을 보고하도록 지시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 내에서 타당한 정서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연구와 연구 1, 연구 2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선행 연구(한덕웅, 강혜자, 2000)에서 수집한 한국어 정서 단어를 바탕으로 각 단어의 정서 단어로서의 적절성을 평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초기 정서단어 목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은 척도에 사용될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연구에서 간추려진 초기 단어목록을 가지고 정서단어 카드를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하는 유사성 분류 과제를 실시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의 수와 이를 대표하는 정서단어를 선별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선별된 정서단어들로 구성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각 정서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해 알아보았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정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척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서 요인들과 정신병리, 행복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 판정을 위한 예비연구

본 연구에 사용할 적정수의 정서단어를 선별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사용된 정서단어는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 수집된 834개 단어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경험을 나타내는 정서단어, 국어사전에 실린 정서단어,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서단어를 이용하여 총 목록을 구성했으며, 각 단어의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과 경험빈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여 보고하였다. 정서 용어로서의 적절성은 각 단어가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1점)에서 “매우 적절하다”(7점)로 평정하도록 했고, 정서

용어의 경험 빈도는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자주 경험한다”(7점)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 도출된 834개의 정서단어를 적정 수준의 수로 줄이기 위하여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과제 방법을 응용,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각 단어가 감정, 성격, 신체상태,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본 예비연구에서는 생각과 정서가 혼동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고자 분류체계에 생각을 추가하여 각 단어가 감정, 성격, 신체상태, 행동, 생각의 다섯 가지 분류체계 중 어느 분류체계에 가장 적합한 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중복응답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834단어에 응답할 경우에 생기는 피로, 무성의 응답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05여 개의 단어를 1묶음으로 구성하여 총 8개의 묶음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모국어가 한국어인 대학생 153명(남자 61명, 여자 92명)이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6세(SD=2.26)였다. 본 예비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1) 예비연구에서 다섯 가지 분류 체계 중 해당 단어가 감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이상이고 (2)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 정서단어로서의 적절성이 60%이상(7점 척도 중 4.2점 이상)으로 평정된 정서단어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단어 중에서 사전상 같은 의미인 단어는 한덕웅과 강혜자의 정서경험 빈도를 기준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분노하다’와 ‘분개하다’의 경우 사전상 의미가 동일하여 한덕웅과 강혜

자의 연구결과에서 경험빈도가 더 높다고 보고된 ‘분노하다’를 채택하였다. 또한 사전에 기본형이 있는 경우에는 단어를 기본형으로 수정하였고(예: ‘감격스럽다’-> ‘감격하다’), 기본형이 없는 명사 정서단어의 경우 ‘-을(를) 느끼다’로 통일하여 수정하였다(예: ‘비에’-> ‘비에를 느끼다’). 위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정서 단어 중 서구의 선행 연구 결과(Izard et al., 1993) 기본정서라고 제시된 정서 요인인 ‘interest’, ‘disgust’, ‘hostility inward’에 해당하는 한국 정서단어 ‘관심 있다’, ‘흥미롭다’, ‘혐오스럽다’, ‘자기혐오를 느끼다’를 추가하여 총 146단어를 선정하였다.

(SD=2.64, 연령 범위 26~30세)였다.

연구방법

각 실험참가자에게 예비연구에서 추출된 146개의 단어가 적힌 카드를 주고 비슷한 정서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단어끼리 한 집단을 만들도록 했다. 집단의 개수는 상관없으나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작게 집단을 나누지 않도록 하고 뜻을 모르는 단어는 뜻을 추측하지 않고 따로 집단(“모른다” 집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결과

10명의 자료는 146×146의 행렬로 변환되었으며 행렬의 각 셀에는 해당되는 단어가 한 집단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를 기재했다(예를 들어 기쁘다(x_i)와 행복하다(x_j)를 비슷한 정서라고 생각하여 같은 집단으로 묶은 학생이 6명이란 행렬에서 해당하는 셀(x_{ij})에 6으로 기재). 이와 같이 구성된 146×146의 행렬을 주성분 분석하여(즉, 146×146 행렬에 대한 Spectral decomposition) 부하량(loading)을 산출하였으며 varimax 방식의 직각회전을 수행하였다.

스크리 도표를 살펴본 결과 최대 15~17개 정도까지의 개별 정서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할 수 있는 2주성분부터 요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주성분의 내용을 17주성분까지 살펴보았다. 2주성분부터 13주성분까지의 정서요인 분화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주성분에서 처음으로 긍정 정서가 기쁨과 성취감의 두 요

연구 1. 한국어 기반 정서척도의 개발을 위한 정서 단어의 선별

연구 1은 한국어 기반 정서척도의 개발을 위한 정서단어의 선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1은 Watson 등(1984)이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서카드를 이용한 유사성 분류과제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한 후,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연구대상

연구 1은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10명의 대학원생(남 5명, 여 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평균 연령은 26.1세(SD=2.64)였고 연령 범위는 22세에서30세였다. 여자의 평균 연령은 24세(SD=1.41, 연령 범위 22~25세), 남자의 평균 연령은 26.1세

표 1. 주성분 수 증가에 따른 정서요인 분화표

주성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											
3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4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5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6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7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8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연민					
9 주성분	즐거움/ 성취감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 친밀감				
10 주성분	즐거움	화/역대감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 친밀감	성취감			
11 주성분	즐거움	회대감/ 경멸/혐오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 친밀감	성취감	화		
12 주성분	즐거움	회대감/ 경멸/혐오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 친밀감	성취감	화	심심함	
13 주성분	즐거움	회대감/ 경멸/혐오	슬픔	수치심/ 수용음	공포	시행/조감	회색감/ 자기혐오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 친밀감	성취감	화	심심함	안락감

인으로 분화되었고, 11주성분에서 처음으로 화와 경멸/적대감이 두 개의 주성분으로 분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2주성분에서부터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주성분(예: ‘쉽습하다’, ‘후련하다’ 등)과 하나의 정서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성분(예: ‘압박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14주성분 이후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내용분석을 통해 11주성분의 87개 문항을 기반으로 요인별 대표 단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11주성분의 87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결과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부록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이 최대 부하량 10의 30%에 해당하는 1.73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명의 평정자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들 정서단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했음을 의미한다. 11개의 주성분은 기쁨, 경멸/증오, 슬픔, 수줍음/수치심, 공포, 사랑/호감, 좌절감,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친밀감, 성취감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1개 주성분 중 사랑/호감,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친밀감에 해당하는 3개의 주성분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위의 세 개의 주성분을 제거한 이유는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경험을 나타내지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정서 경험이라기보다는 특정 대상을 향한 비교적 지속적인 정서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은 8개의 주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중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대표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요인을 대표하는 단어이면서 둘째 복합적인 성격이 가장 적은 정서 단어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비에를 느끼다’는 슬픔 주성분에서 부하량은 가장 높았지만 복합적인 정서경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또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등도 특정 개별정서를 대표하기 보다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대표하는 복합적인 정서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최종 선별된 대표 단어 35개를 부록 1에 표기하였다.

논의

연구 1은 한국어 기반 정서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정서단어의 선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연구에서 선별된 146개의 정서단어를 기반으로 Watson 등(1984)이 사용했던 정서단어 카드를 이용한 유사성 분류과제를 실시하여 주성분 분석 한 결과 11개요인의 87개 단어가 선정되었고,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이 중 사랑/호감,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친밀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 3개의 요인을 제거하고 8개 요인에 대한 대표 단어를 선정하여 최종 35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주성분 수 증가에 따른 정서요인 분화 양상(표 1)을 살펴보면 정서요인을 가장 크게 2요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부정 정서를 대표하는 요인들 중 가장 먼저 분화되어 나타난 것이 ‘화’로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화’ 요인은 정서 요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대감, 경멸, 혐오 등의 요인들과 함께 묶이기도 하고 따로 분리되기도 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정서 요인들이 정서 요인수가 증가해도 상당히 안정적

으로 묶여서 나타났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와 연구 1을 통해 단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접근(Bottom-up approach)과 이론적 접근(Top-down approach)을 병행하였다. 예비연구에서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834개 단어목록을 146개로 줄이는 초기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정서 단어의 적절성 평가, 경험 빈도를 기준으로 한 동의어 제거 등의 절차를 거쳐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단어들을 선별하였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부 단어들을 기본정서 이론에 근거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146개의 단어에 대한 유사성 분류과제 결과 요인 부하량에 근거하여 11개 요인 87개 단어를 선별하였으나, 35개의 최종 단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선행연구와 정서이론을 바탕으로 세 개의 요인을 제거하고 나머지 요인 중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 결과 도출된 87개의 단어에서 35개의 단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랑/호감,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친밀감의 세 개의 정서요인을 임의로 제거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 사랑/호감 및 연민과 같은 지속적인 정서경험을 중요한 기본 정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Diener, Smith, & Fujita, 1995) 이를 기본 정서로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Ekman & Cordaro, 2011). Watson 등(1984)은 사랑과 같은 정서는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정서 척도 개발 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임의로 제거하였고, Ekman 등(1969)과 Izard(1977)와 같은 정서 이론가들도 기본 정서에 사랑이나 연민

과 같은 정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서이론에서 일관적으로 기본 정서라고 언급되었던 정서들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사랑, 연민과 같은 복잡한 정서경험을 자기보고식 척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단어선별 과정에서 최대 부하량의 3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킨 87개의 단어들 중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이와 같이 내용 분석을 통해 대표 단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요인부하량만을 가지고 단어를 선별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배제되거나(예: 분노하다), 일상생활에서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정서 강도가 강한 단어들(예: 울분을 느끼다, 비분강개하다)이 포함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 대표성 있는 단어의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록 1에 제시된 주성분 분석 결과표를 살펴보면 모든 단어들의 요인 부하량이 기준치(최대 부하량의 30% 이상)를 넘으면서 중복 부하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 결과 추출된 87개의 단어 모두 정서 척도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단어들이라고 판단되어, 이들 중 대표성이 낮은 단어들을 내용분석을 통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단어를 선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타당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2. 한국어 기반 정서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2는 연구 1에서 도출된 35개의 정서단어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연구 2에는 대학생 276명, 일반인 69명의 총 345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는 남자 179명, 여자 164명, 성별을 보고하지 않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25.22세(SD=11.11), 연령 범위는 17세~65세이었다. 연령대별 분포는 10대가 128명(37.2%), 20대가 166명(48.3%), 30대 10명(2.9%), 40대 11명(3.2%), 50대 이상이 29명(8.4%)이었다.

측정도구

개별정서척도(Discrete Emotions Scale: DES)

연구 1에서 선별된 35개의 단어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별정서척도라고 명명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정서에 대한 기억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정서단어를 읽고 ‘현재 또는 오늘’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척도에서 사용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 또는 오늘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별정서척도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Watson, Clark, & Tellegen, 1988)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2요인 구조를 가지며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의 번안 본을 이선화, 김보미, 유성은(2012)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요인이 .90, 부정 정서 요인이 .89로 나타났다.

차별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차별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는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화,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적대감의 12가지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각 정서경험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각 정서를 경험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정서 당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화 등(2012)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했다. 12가지 정서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1-.80의 범위로 이선화 등(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1977)가 개발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화,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의 하위 요인과 전체 정신 병리 수준을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를 측정한다. 총 90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0점-4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심도 지수에 대한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본 연구에서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은 동양 문화권에서의 집단적인 요소와 낮은 각성 상태의 정서의 가치가 중요시 된다는 점 등을 보완하여 단축형 행복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험 빈도를 측정하여 최종 행복 점수(삶의 만족감 +긍정정서-부정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만족감 .87~.89, 긍정 정서 .82~.83, 부정 정서 .85~.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69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만족감 .91, 긍정 정서 .89, 부정 정서 .84로 나타났다.

결과

요인분석

35개의 정서단어에 대한 345명의 대학생과 일반인의 응답을 바탕으로, 주축요인분해 방식을 이용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Kaiser 규칙(고유치 1이상)과 스크리 도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스크리 도표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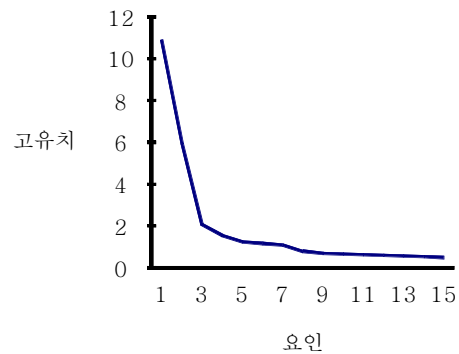


그림 1. 35개 문항에 대한 스크리 도표

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7개가 있었으며, 스크리 도표를 살펴본 결과 요인의 개수는 2개 또는 7개를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의 개수를 7개로 추출한 경우에는 즐거움, 성취감의 2개의 긍정정서요인과 화/경멸/혐오,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를 포함하는 5개의 부정정서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의 개수를 2개만 추출한 경우에는 즐거움과 성취감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긍정정서요인과 화/경멸/혐오,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에

표 2. 2요인 모형과 7요인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chi^2$	Δdf
2요인모형	2622.88***	559		
7요인모형	1308.46***	539	1314.42***	20
	CFI	TLI	RMSEA	
2요인모형	.714	.696	.104	
7요인모형	.893	.882	.064	

주.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3. 개별정서척도의 요인구조 (형태행렬)

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1	자책감을 느끼다	.68						
죄책감/자기혐오	자기혐오를 느끼다	.60						
	죄책감을 느끼다	.50						
요인 2	즐겁다		.85					
즐거움	흥겹다		.80					
	유쾌하다		.77					
	행복하다		.75					
	신나다		.69					
	흥미롭다		.67					
	기쁘다		.65					
요인 3	분노하다			.79				
화/경멸/혐오	분하다			.77				
	증오하다			.71				
	미워하다			.71				
	경멸하다			.64				
	혐오스럽다	.33		.59				
	화나다			.58				
요인 4	무섭다				.85			
공포	공포스럽다				.69			
	겁나다				.60			
	두렵다				.55			.33
요인 5	성취감을 느끼다					.72		
성취감	뿌듯하다					.70		
	승리감을 느끼다					.65		
요인 6	부끄럽다						.80	
수치심/수줍음	쑥스럽다						.67	
	민망하다						.67	
	창피하다						.63	
	수줍다						.55	
	무안하다						.47	
	수치스럽다						.36	
요인 7	우울하다							.57
슬픔	서글프다							.52
	슬프다	.31						.51
	가슴아프다							.43
고유값		10.90	5.94	2.07	1.56	1.25	1.16	1.08
설명량		31.13	16.96	5.90	4.44	3.57	3.32	3.07

주.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고유값, 설명량은 회전 전의 값을 제시함.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부정정서요인이 추출되었다. 두 가지의 요인구조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인구조(2요인 구조와 7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v7.0으로 최대우도추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2요인 구조와 7요인 구조는 위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Kline, 2011),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어떤 요인구조가 자료와 더 잘 합치하는지 평가하였다(표 2).

2요인 구조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 = 2622.88$, $df=559$ 였으며, 7요인 구조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 = 1308.46$, $df=539$ 였다. 두 가지 요인구조에 대한 차이는 $\Delta\chi^2 = 1314.42$, $\Delta df=20$ 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즉, 7요인 구조가 자료와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7요인 구조에 대한 형태행렬(pattern

matrix)을 제시하였다.

신뢰도 및 정서요인 간의 상관

개별정서척도의 7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정서인 즐거움과 성취감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정서인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는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즐거움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취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성취감은 수치심/수줍음과 정적인 상관관계($r = .20$,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요인의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즐거움 .92, 화/경멸/혐오 .90, 수치심/수줍음 .87, 슬픔 .85, 공포 .84, 죄책감/자기혐오 .83, 성취감 .78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문항과 요인 총점 간의 상관

표 4. 개별정서척도 7요인간의 상관계수와 신뢰도 지수

정서	죄책감 /자기혐오	즐거움	화/경멸 /혐오	공포	성취감	수치심 /수줍음	슬픔
1. 죄책감/자기혐오	1						
2. 즐거움	-.17**	1					
3. 화/경멸/혐오	.57**	-.21**	1				
4. 공포	.56**	-.21**	.52**	1			
5. 성취감	.03	.56**	.03	-.03	1		
6. 수치심/수줍음	.61**	.07	.50**	.54**	.20**	1	
7. 슬픔	.63**	-.33**	.62**	.66**	-.09	.48**	1
M	5.40	20.73	12.35	7.42	7.54	13.46	8.68
SD	2.52	6.00	5.37	3.20	2.72	5.23	3.74
Cronbach α	.83	.92	.90	.84	.78	.87	.85
문항-요인 총점 상관	.84-.89	.78-.85	.74-.85	.73-.86	.83-.85	.78-.85	.69-.83

주. M=평균, SD=표준편차

* $p < .05$, ** $p < .01$.

계수는 .69에서 .89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슬픔’ 요인의 문항-요인 총점 간 상관관계수가 다소 낮았다.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개별정서척도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적 및 부적 정서척도(PANAS), 차별적 정서척도(DES-IV)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개별정서척도의 긍정정서 요인인 즐거움, 성취감과 PANAS의 긍정정서(PA)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개별정서척도의 부정정서 요인인 화/경멸/혐오,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는 PANAS

의 부정정서(NA)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수치심/수줍음의 경우에는 PANAS의 긍정정서(PA)와도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인 상관($r=.17, p<.01$)을 보였다.

차별적 정서척도(DES-IV)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별정서척도의 긍정정서인 즐거움은 DES-IV의 긍정정서인 흥미, 즐거움, 놀람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수줍음을 제외한 부정정서(슬픔, 화,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내부적대감)와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개별정서척도의 성취감은 DES-IV의 긍정정서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슬픔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정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

표 5. 개별정서척도와 정적 및 부적 정서척도(PANAS),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상관계수

	하위요인	죄책감/ 자기혐오	즐거움	화/경멸/ 혐오	공포	성취감	수치심/ 수줍음	슬픔
PANAS	PA	-.02	.74**	-.04	-.05	.60**	.17**	-.12*
	NA	.72**	-.27**	.66**	.71**	-.07	.57**	.73**
DES-IV	흥미	-.10	.56**	-.14**	-.08	.50**	.11*	-.16**
	즐거움	-.30**	.72**	-.23**	-.27**	.47**	-.04	-.36**
	놀람	.13*	.27**	.16**	.13*	.37**	.28**	.05
	슬픔	.50**	-.36**	.47**	.49**	-.18**	.36**	.68**
	화	.34**	-.21**	.58**	.34**	-.01	.30**	.50**
	혐오	.48**	-.27**	.58**	.32**	.01	.37**	.44**
	경멸	.39**	-.22**	.48**	.36**	.00	.39**	.40**
	공포	.47**	-.22**	.46**	.59**	-.05	.46**	.54**
	죄책감	.49**	-.23**	.31**	.36**	-.09	.39**	.45**
	수치심	.46**	-.13*	.36**	.40**	.00	.52**	.38**
	수줍음	.49**	-.10	.27**	.31**	.04	.59**	.36**
내부적대감	.56**	-.32**	.41**	.40**	-.04	.43**	.45**	

주. PA=정적 및 부적 정서척도(PANAS)의 긍정정서 요인, NA=정적 및 부적 정서척도(PANAS)의 부정정서 요인

* $p<.05$, ** $p<.01$.

로 나타났다. 개별정서척도의 부정정서인 화/경멸/혐오,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는 DES-IV의 부정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DES-IV의 긍정정서 중 하나인 놀람과도 대부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개별정서척도의 수치심/수줍음은 DES-IV의 흥미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준거 타당도

개별정서척도의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별정서척도의 하위요인들과 개인의 행복감, 정신병리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개별정서척도와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행복지수는 즐거움, 성취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죄책감/자기혐오를 제외한 부정정서와는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다. 각 정서요인들과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삶의 만족감,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별정서척도의 다섯 가지 부정정서 요인 모두 행복척도의 부정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일부 부정정서 요인들은 단축형 행복척도의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감과 유의한 부적의 상관을 보였으나 즐거움, 성취감은 단축형 행복척도의 부정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정서척도의 2가지 긍정정서 요인인 즐거움과 성취감은 행복척도

표 6. 개별정서척도,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상관계수

	하위요인	죄책감/ 자기혐오	즐거움	화/경멸/ 혐오	공포	성취감	수치심/ 수줍음	슬픔
COMOSWB	행복지수	-.20	.58**	-.27*	-.50**	.39**	-.34**	-.56**
	삶의 만족감	-.04	.48**	-.08	-.38**	.43**	-.14	-.30*
	긍정정서	-.15	.60**	-.22	-.38**	.42**	-.25*	-.45**
	부정정서	.26*	-.24	.31*	.35**	-.04	.36**	.49**
SCL-90	전체심도지수	.40**	-.27**	.38**	.37**	-.10	.32**	.42**
	우울	.42**	-.56**	.34**	.34**	-.22**	.27**	.50**
	불안	.40**	-.27**	.34**	.44**	-.06	.33**	.40**
	대인예민성	.35**	-.22**	.34**	.26**	-.11*	.32**	.35**
	공포불안	.33**	-.19**	.28**	.33**	.01	.31**	.28**
	신체화	.24**	-.21**	.29**	.25**	-.04	.20**	.29**
	강박증	.40**	-.28**	.32**	.35**	-.20**	.29**	.42**
	편집증	.31**	-.20**	.29**	.28**	-.02	.32**	.31**
	정신증	.35**	-.22**	.30**	.30**	-.05	.32**	.33**
	적대감	.31**	-.25**	.44**	.30**	-.11*	.20**	.36**

* $p < .05$, ** $p < .01$.

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감, 긍정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정서척도의 각 요인들과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즐거움의 경우 전체심도지수를 포함한 모든 정신 병리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화/경멸/혐오,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는 모든 정신 병리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성취감 요인의 경우에는 우울, 대인 예민성, 강박증, 적대감과의 관계에서만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논의

연구 2는 개별정서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개별정서척도의 요인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2요인 구조 또는 즐거움, 성취감 화/경멸/혐오, 수치심/수줍음,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의 7요인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시되어 이 두 가지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요인구조가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35개 단어로 구성된 7요인 구조를 채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정서 7요인은 죄책감/자기혐오, 즐거움, 화/경멸/혐오, 공포, 성취감, 수치심/수줍음, 슬픔으로 2개의 긍정 정서 요인과 5개의 부정 정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Watson 등(1988)이 주장한 범문화적 정서 2요인이나 Ekman 등(1969)이 주장하는 기본정서 6요인 보다는 세분화된 양상이지만 Izard 등(1993)의 개별 정서 12요인보다는 적은 수의 요인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홍창희(2004)가 개발한 2요인 구조의 ‘한국 정서경험척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자료에서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2요인 구조가 존재함을 시사했지만 2요인 이상의 개별 정서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7요인 구조가 자료와 더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정서 구조는 이준웅 등(2008)의 연구 결과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준웅 등(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정서구조가 상위 쾌-불쾌의 2요인 구조 하에 기쁨, 긍지, 사랑,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좌절, 슬픔의 9요인의 하위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1에서 제거한 사랑/호감, 연민과 같은 대인관계 정서 요인이 포함되어 나타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준웅 등(2008)의 연구는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정서단어 목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다차원 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정서의 차원과 구조를 밝히려 했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단어 목록과 다른 목록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절차도 상이했지만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별정서척도 7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와 문항-요인 총점 상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개별정서척도의 7요인 중 즐거움과 성취감은 다른 정서척도의 긍정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수치심/수줍음, 화/경멸/혐오, 슬픔, 공포, 죄책감/자기혐오는 다른 정서척도의 부정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 본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수치심/수줍음 요인을 제외하면, 쾌-불쾌 차원에서 상반되는 정서요인들은 서로 부적인 상

관을 보이거나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개별 정서들 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특히 부정 정서 요인 간 상관과 긍정 정서 요인 간 상관이 높아 각 요인에 대한 변별 타당도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예외적으로 수치심/수줍음 요인이 PANAS의 긍정정서 요인과 DES-IV의 흥미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서구 문화권에 비해 동양 문화권에서 수줍음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Chen, Rubin, Li, & Li, 1999; Rappe et al., 2011). 한국에서는 수치심과 수줍음의 경계가 모호해 수줍음이 수치심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는 연구 결과(남기숙, 조선미, 이훈진, 2006)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별정서 척도의 정서요인들과 행복지수, 정신병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별정서척도가 적합한 준거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즐거움, 성취감과 같은 긍정정서 요인들은 행복지수와는 정적인 상관을, 정신병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든 부정 정서요인들은 정신병리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국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구재선, 김의철, 2005). 하지만, 즐거움 요인은 모든 정신병리 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취감은 우울, 대인예민성, 강박증, 적대감 등의 일부 정신병리 요인들과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즐거움과 성취감 모두 긍정 정서이지만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는 상호 의존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성취감은 나와 남을 분리하는 정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서일 수 있으며(Scollon et al., 2005)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권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Eid & Diener, 2001)는 연구결과를 볼 때 그 세부적인 쓰임새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및 종합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정서단어를 기반으로 정서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35단어로 구성된 7요인 구조의 개별정서척도가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하게 한국인의 개별정서를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정서 7요인은 Izard나 Ekman이 주장하는 기본정서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범문화적인 기본 정서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놀람’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기본정서 척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감’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적 정서척도(Izard et al., 1993)를 타당화한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도 ‘놀람’요인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47로 나타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0여개가 넘는 한국어 정서단어 목록에서도 놀람을 표현하는 언어가 ‘놀라다’, ‘경악하다’는 두 개 단어 이외에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 ‘놀라다’는 연구 1의 카드분류과제 결과 나타난 146단어 행렬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어느 주성분에도 속하지 않는 낮은 부하량(기준값 1.73 이하)을 보여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놀람’의 언어적 표현과 기능이 한국인과 서구인들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도출된 ‘성취

감'요인은 미국 정서 척도의 자긍심(pride)와 유사한 정서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한국인이 경험하는 '성취감'이라는 정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정서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본 정서 이론에 입각해서 고찰해 보면, 일부 기본 정서들이 함께 묶여 나타나거나 화 관련 정서 요인들이 다소 불안정한 요인 구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 1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화'와 '경멸/혐오' 요인이 연구 2에서 '화/경멸/혐오'의 단일 요인으로 합쳐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화/경멸/혐오 요인에 세심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웅 등(2008)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9가지 기본 정서 군집들 중 분노 군집 하에 가장 많은 정서 단어들이 포함되었으며, 분노 군집 내에 질투, 혐오, 분노, 원망, 부러움의 5가지 하위 군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준웅 등(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혐오 군집 내에는 '증오, 혐오, 경멸, 역겹, 환멸, 싫다, 불쾌'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경멸과 혐오가 함께 묶여 하나의 요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만영과 이홍철(1990)의 연구에서도 기분 단어들을 5, 6, 8, 9요인으로 나누어서 요인 분석한 결과 분노감과 경멸감이 지속적으로 같은 요인에 묶여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화, 혐오, 경멸에 대해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의 정서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화는 접근동기를 유발하는 정서 경험이고 경멸과 혐오는 회피정서를 유발하는 정서 경험이므로 이 두 가지 군집으로 나누어서 분류

해야 한다는 관점, 화, 경멸, 혐오의 세 가지 정서경험이 서로 다른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의 개별 정서로 보는 관점이 공존한다(Hutcherson & Gross, 2011). Hutcherson과 Gross(2011)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화, 혐오, 경멸을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개별 정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화, 혐오, 경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이 과연 한국인의 정서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가설은 한국인에게서 화, 경멸, 혐오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경험으로 인식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은 한국인의 정서를 쾌-불쾌 차원과 타인 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화, 경멸, 혐오를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정서 경험이라고 해석한다면, 타인 초점적 부정 정서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7요인과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 번안, 타당화한 차별적 정서척도(Izard et al., 1993)의 12요인을 비교해 보면 일부 기본 정서 요인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죄책감/자기혐오, 수치심/수줍음, 화/경멸/혐오 요인들이 차별적 정서척도에서는 모두 개별 정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화/경멸/혐오 요인에 비해 죄책감/자기혐오, 수치심/수줍음은 비교적 안정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었다.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차별적 정

서척도의 경우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 형식으로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별정서척도나 PANAS와 같은 정서척도는 단어로써 정서 경험을 측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차별적 정서척도처럼 문장으로 정서를 측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상이나 맥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별 정서들을 분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반면 36개의 문장을 읽고 답해야 하는 차별적 정서척도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별정서척도가 측정상의 용이성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ANAS의 경우 정서 형용사로 구성된 타당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용이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이지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2요인만을 측정한다는 면에 있어 개별 정서를 연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한국인의 정서 구조가 긍정-부정의 하나의 차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요인 구조의 적합도 지수도 2요인 구조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높은 적합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의 정서 구조가 7요인 이상의 개별 정서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외한 사랑/호감, 연민, 대인관계 안정감/친밀감 등의 대인관계 정서 경험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척도의 개발이 제한된 수의 대학생과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출된 7요인 구조가 한국인 남녀, 일반인과 대학생, 임상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교차 타당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Watson 등(1984)

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3개월 간의 종단자료를 수집하여 피험자 간 뿐 아니라 피험자 내 변산까지 고려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척도의 요인구조와 타당화 작업을 수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만을 가지고 정서의 요인구조와 타당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차 타당화 연구와 종단 연구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정서단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개별정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이상의 개별적인 정서 요인들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국내에 부족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척도의 개발이 개별 정서요인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혜자, 한덕웅 (1994). 정서의 공발생 경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207-218.
- 구재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행복한 생활 경험과 정서경험: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68-169.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남기숙, 조선미, 이훈진 (2006). 한국어 단어를 기초로 한 수치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1063-1085.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

- 회 및 성격, 19(1), 109-129.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07-123.
- 이만영, 이홍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서관련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 118-138.
- 이선화, 김보미, 유성은 (2012).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47-167.
-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정서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 Bagozzi, R. P., Wong, N., & Yi, Y.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Cognition and Emotion*, 13, 641-672.
- Chen, X., Rubin, K. H., Li, B-S., & Li, D. (1999). Adolescent outcomes of social functioning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99-223.
- Derogatis, L. R. (1977).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30-141.
- Eid, M., & Diener, E. (2001). Norms for experienc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Inter- 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69-885.
- Ekman, P., & Cordaro, D. (2011). What is meant by calling emotions basic. *Emotion Review*, 3, 364-370.
- Ekman, P., Sorenson, E. R., & Friesen W. V. (1969). Pan-Cultural Elements in Facial Displays of Emotion. *Science*, 164(3875), 86-88.
- Hutcherson, C. A., & Gross, J. J. (2011). The moral emotions: A social-functionalist account of anger, disgust,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719-737.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 Izard, C. E., Libero, D. Z., Putnam, R., & Haynes, O. M. (1993). Stability of emotion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 to trait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47-86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 York: Guilford Press.
- Rapee, R. M., Kim, J., Wang, J., Liu, X., Hofmann, S. G., Chen, J., Oh, K. Y., Bogels, S. M., Arman, S., Heinrichs, N., & Alden, L. E. (2011). Perceived impact of socially anxious behaviors on individuals' lives in Western and East Asian Countries. *Behavior Therapy, 42*, 485-492.
- Scherer, K. R., & Wallbott, J. G. (1994). Evidence for universality and cultural variation of differential emotion response patte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10-328.
- Scollon, C. N., Diener, E., Oishi, S., & Biswas-Diener, R. (2004). Emotions across cultures and metho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304-326.
- Scollon, C. N., Diener, E., Oishi, S., & Biswas-Diener, R. (2005). An experience sampling and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pleasant and unpleasant affect. *Cognition and Emotion, 19*, 27-52.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4). Cross-cultural convergence in the structure of mood: A Japanese replication and a comparison with U.S.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7-14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1 차원고접수 : 2012. 9. 30.

수정원고접수 : 2012. 12. 24.

최종게재결정 : 2013. 2. 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iscrete Emotions Scale(DES)

Songyi Kim¹⁾ Jin-Sup Eom¹⁾ Eunyo Ro²⁾ Sungeun You¹⁾

¹⁾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University of Notre Dame

The aims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ere to develop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discrete emotions based on Korean emotion words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n a preliminary study, 153 undergraduate students evaluated 834 emotion terms collected by Han and Kang(2000) in ord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appropriateness to be used as emotion terms. A final list of 146 emotion terms to be used in study 1 was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two criteria: the appropriateness as emotion terms determined by the preliminary study and the frequency in which we experience these emotions in our daily lives as reported in Han and Kang(2000). In study 1, an emotion card sorting task was administered to 10 graduate students who were blin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Principle components analyses with varimax rotation yielded 11 factors, from which 3 factors (i.e., love, compassion, and interpersonal stability/intimacy) were eliminated. From the final 8 factors (i.e., enjoyment, contempt/disgust, sadness, guilt/hostility, fear, shame/shyness, feeling of achievement, anger), 35 representative emotion terms were selected to form our Discrete Emotions Scale(DES). In study 2, 345 undergraduate students and community adults completed the Discrete Emotions Scale(DE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 Differential Emotions Scale- IV(DES-IV), Symptom Checklist-90(SCL-90), and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Scale(COMOSWB).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pported the 7 factor structure of guilt/hostility, enjoyment, anger/contempt/disgust, fear, feeling of achievement, shame/shyness, and sadness. Our Discrete Emotions Scale(DES) showed adeq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conclusion, the Discrete Emotions Scale(DES) has a potential to be used as a valid measure of seven discrete emotion factors in Korea.

Key words : Discrete Emotions Scale(DES), reliability, validity, emotion structure

부록 1

정서 단어 카드를 이용한 유사성 분류기에 대한 주성분 분석결과표 (*대표어)

주성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상황													
신나다	2.99	0.00	0.00	0.00	0.00	-0.18	0.00	0.01	0.02	0.51	0.00	0.00	-0.01
즐겁다	2.99	0.00	0.00	0.00	0.00	-0.18	0.00	0.01	0.02	0.51	0.00	0.00	-0.01
흥겹다	2.99	0.00	0.00	0.00	0.00	-0.18	0.00	0.01	0.02	0.51	0.00	0.00	-0.01
기쁘다	2.66	0.00	0.00	0.00	-0.01	-0.20	0.00	0.03	-0.18	1.13	0.00	0.02	0.00
유쾌하다	2.66	0.00	0.00	0.00	-0.01	-0.20	0.00	0.03	-0.18	1.13	0.00	0.02	0.00
기분 좋다	2.65	0.00	0.00	0.00	0.00	-0.15	0.00	0.00	0.10	0.88	0.00	0.00	-0.02
행복하다	2.09	0.00	-0.02	0.00	0.02	-0.29	-0.01	-0.07	0.60	0.68	0.00	0.01	-0.02
흥미롭다	2.06	-0.01	0.01	-0.05	0.01	-0.73	-0.01	-0.01	0.08	0.00	0.00	-0.06	0.02
들뜨다	1.81	0.00	0.00	-0.01	-0.01	-0.16	0.00	0.04	-0.08	1.39	0.00	-0.01	0.01
이리하다	-0.01	2.44	0.06	0.01	0.00	-0.01	-0.19	0.00	-0.05	0.00	0.38	-0.37	0.03
싫다	0.00	2.45	0.00	0.03	0.18	-0.01	-0.08	-0.02	-0.02	0.00	0.36	-0.14	0.15
중요하다	0.01	2.38	-0.09	0.03	-0.02	0.02	0.09	0.00	0.05	-0.02	0.45	0.14	-0.05
적대감을 느낀다	0.01	2.31	-0.09	0.02	0.00	0.01	0.31	-0.04	0.02	-0.01	0.49	0.19	0.08
힘소름다	0.01	2.06	-0.13	0.03	0.20	0.00	0.64	-0.04	0.01	-0.01	0.25	0.21	0.28
경멸하다	0.01	1.98	-0.13	0.01	0.23	0.00	0.30	0.00	0.00	-0.01	0.39	0.14	0.38
기분 나쁘다	-0.02	1.81	0.34	-0.12	-0.02	-0.01	-0.27	0.01	-0.09	0.03	0.54	-1.44	-0.06
취가 멀러다	0.01	1.78	-0.01	-0.13	-0.01	0.01	0.61	0.14	0.03	-0.02	1.05	0.33	0.40
비애를 느낀다	-0.02	0.03	-2.56	-0.01	0.01	-0.03	-0.16	0.34	-0.12	0.01	0.42	0.17	-0.11
가슴아프다	-0.02	0.12	-2.50	0.00	-0.01	-0.03	-0.05	0.41	-0.13	0.01	-0.04	0.10	-0.02
서글프다	-0.03	0.18	-2.47	-0.01	0.02	-0.04	-0.14	0.30	-0.13	0.02	-0.06	0.20	-0.12
슬프다	-0.03	-0.13	-2.32	0.03	0.10	-0.04	0.08	-0.43	-0.13	0.02	0.49	-0.14	-0.19
치맛하다	-0.01	-0.03	-2.04	0.04	-0.07	-0.01	0.02	0.45	-0.04	0.01	0.01	-0.29	0.09
우수에 차다	0.04	0.22	-1.96	-0.04	0.01	0.14	-0.22	0.45	0.75	-0.02	-0.17	-0.03	0.08
애절하다	0.00	0.14	-1.95	-0.02	-0.11	-0.01	-0.11	1.20	-0.02	-0.01	-0.14	-0.07	0.25
애잔하다	0.05	0.19	-1.93	-0.03	0.02	0.02	-0.12	0.17	0.68	-0.03	-0.21	-0.17	0.15
우물거리다	-0.02	0.10	-1.91	0.00	0.25	-0.02	-0.07	-0.41	-0.06	0.02	-0.11	-0.37	-0.25
애수롭 느낀다	0.03	0.16	-1.84	-0.04	-0.06	0.10	-0.16	1.09	0.31	-0.03	-0.23	-0.30	0.33

수용성척도	무언하다	.000	.012	.004	.007	2.68	0.01	0.07	0.14	0.02	0.00	-0.02	0.05	0.07	-0.25
	미안하다	.000	.006	.007	.008	2.60	0.01	0.05	0.39	0.01	0.00	0.06	0.00	0.04	
	정신다	.000	.007	.007	.008	2.60	0.01	0.05	0.39	0.01	0.00	0.06	-0.01	0.04	
	심박하다	.000	.012	.004	.007	2.54	0.01	0.07	0.15	0.01	0.00	-0.03	0.05	0.05	
	간담이 사늘하다	.001	.004	.009	.005	2.47	0.02	0.04	0.27	0.02	0.00	0.06	0.00	-0.21	
	부럽다	.000	.006	.006	.005	2.35	0.01	0.03	0.22	0.00	0.00	0.06	-0.01	-0.02	
	불안하다	.000	.007	.043	.042	1.81	.005	-0.16	0.25	-0.06	0.00	-0.09	0.00	-0.39	
	예려움 느끼다	.008	.000	.004	.004	.002	.064	0.03	0.08	0.13	0.17	0.02	0.05	0.04	
	호감움 느끼다	.008	.000	.004	.004	.002	.064	0.03	0.08	0.13	0.17	0.02	0.05	0.04	
	관심 있다	.018	.000	.002	.001	.002	.056	0.01	0.08	0.13	0.12	0.00	-0.01	0.04	
시행요강	안하다	.044	.001	.002	.002	.001	.039	0.00	0.08	0.39	0.27	0.00	0.02	-0.02	
	좋아한다	.050	.002	.001	.003	.000	.036	.001	.001	.064	.026	.000	.004	-0.04	
	마음 풀린다	.059	.002	.002	.002	.001	.030	.000	.002	.027	.014	.000	.003	.004	
	두근거리다	.023	.000	.005	.039	.008	.017	.008	.004	.028	.022	.004	.014	.030	
	시행하다	.054	.002	.002	.001	.000	.033	.002	.003	.039	.027	.001	.002	-0.07	
	피로감움 느끼다	.000	.063	.006	.008	.006	.000	2.40	0.07	0.02	0.00	0.18	-0.11	-0.25	
	외세감움 느끼다	.000	.054	.013	.012	.010	.000	2.09	0.21	0.01	0.00	0.14	-0.26	-0.36	
	자기혐오움 느끼다	.000	.075	.003	.001	.007	.001	2.18	.008	.008	.000	.025	.008	-0.31	
피로감	차책감움 느끼다	.000	.006	.004	.050	.001	.002	2.03	.004	.003	.001	.017	.011	.027	
	별종감움 느끼다	.000	.068	.003	.015	.010	.000	1.99	.008	.002	.001	.021	.022	.048	
	실세감움 느끼다	.000	.010	.011	.009	.034	.000	1.96	.008	.008	.002	.008	.037	.060	
	죄의감움 느끼다	.000	.034	.002	.045	.005	.001	1.96	.001	.002	.000	.025	.016	.048	
	회색감움 느끼다	.000	.003	.005	.047	.005	.001	1.88	.007	.000	.000	.009	.007	.008	

	인사말이다	0.00	-0.10	-0.20	0.05	0.24	0.03	0.19	2.16	0.09	-0.02	-0.04	-0.40	0.02
	마음이 울리다	0.02	-0.09	-0.11	0.03	0.37	0.08	0.01	2.08	0.07	-0.02	-0.03	-0.24	-0.13
	에타다	-0.08	0.08	-0.34	0.00	0.21	-0.49	-0.06	1.98	-0.10	-0.02	0.01	0.35	-0.68
	비언사이다	0.01	-0.08	-0.12	0.03	0.30	0.05	0.20	1.94	0.01	-0.02	-0.06	-0.38	0.09
	걱정하다	0.01	-0.07	-0.16	0.02	0.62	0.06	-0.02	1.92	0.08	-0.02	-0.02	-0.17	-0.19
	에올다	-0.02	0.09	-0.64	-0.07	0.25	-0.06	-0.07	1.91	-0.13	-0.01	0.34	0.57	-0.46
	안정감을 느끼다	-0.10	-0.01	0.06	0.00	0.00	-0.03	0.00	-0.03	2.33	0.15	0.06	0.12	-0.04
	위안감을 느끼다	0.00	0.00	0.05	-0.01	0.01	0.23	-0.01	-0.04	2.33	0.21	0.04	0.11	-0.06
	통쾌감을 느끼다	-0.06	0.00	0.05	0.00	0.00	-0.10	0.00	-0.03	2.30	0.06	0.06	0.13	-0.04
	친근감을 느끼다	-0.04	-0.01	0.05	0.00	0.01	-0.40	0.00	-0.03	2.38	0.06	0.06	0.12	-0.06
	경을 느끼다	-0.02	0.02	0.00	0.01	-0.01	-0.80	-0.02	0.01	1.98	-0.15	0.01	0.05	-0.08
	정확감을 느끼다	0.09	0.00	0.02	-0.01	-0.01	-0.06	0.01	0.06	0.30	2.71	0.01	0.07	0.00
	승리감을 느끼다	0.44	0.00	-0.01	0.00	-0.01	-0.07	0.01	0.02	-0.01	2.80	0.00	0.04	-0.01
	치욕감을 느끼다	0.15	0.00	0.02	0.00	-0.01	-0.08	0.01	0.06	0.26	2.53	0.01	0.06	0.00
	뿌듯하다	0.17	0.01	-0.01	0.00	0.00	-0.10	0.00	0.02	0.14	2.50	0.00	0.02	-0.01
	외면감 느끼다	0.83	0.00	-0.02	0.01	-0.01	-0.33	0.01	0.06	-0.18	2.30	0.00	0.04	0.00
	통쾌하다	0.66	0.00	0.00	0.00	0.00	-0.19	0.00	0.02	-0.10	2.00	0.00	0.00	0.00
	재감을 느끼다	1.43	0.00	-0.01	0.00	-0.01	-0.22	0.01	0.02	-0.12	2.00	0.00	0.03	-0.01
	흔쾌감을 느끼다	1.20	0.00	-0.01	0.00	-0.01	-0.20	0.01	0.04	-0.18	1.96	0.00	0.03	0.01
	기승분하다	0.63	0.01	-0.01	0.00	0.01	-0.33	-0.01	-0.01	0.32	1.91	-0.01	0.00	-0.02
	위엄감을 느끼다	0.30	0.00	0.01	0.01	0.00	-0.35	0.01	0.06	-0.08	1.74	0.00	-0.01	0.01
	음탕감을 느끼다	0.01	0.80	-0.06	-0.03	0.00	0.00	-0.02	0.06	0.02	-0.01	2.69	0.12	0.13
	미용감정하다	0.01	0.78	-0.06	-0.03	0.00	0.00	0.01	0.07	0.02	-0.01	2.66	0.08	0.15
	올바름 되리다	0.00	0.80	0.03	-0.03	0.01	0.00	-0.12	0.07	0.00	0.00	2.61	-0.15	0.13
	화나다	0.00	0.86	0.05	-0.04	0.00	0.00	-0.12	0.09	0.00	0.00	2.40	-0.16	0.13
	용하다	0.00	0.62	-0.07	-0.01	-0.01	0.00	0.11	0.04	0.00	-0.01	2.39	0.00	0.01
	원통하다	-0.01	0.49	-0.07	-0.06	0.02	-0.01	0.35	-0.05	-0.04	0.00	2.38	-0.52	0.05
	분노하다	0.01	0.91	-0.09	0.05	-0.01	0.01	0.05	-0.03	0.02	-0.01	2.05	-0.01	-0.12

부록 2

개별정서척도(DES)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 또는 오늘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2-----3-----4-----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슴 아프다	1	2	3	4	5	19	슬프다	1	2	3	4	5
2	겁나다	1	2	3	4	5	20	승리감을 느끼다	1	2	3	4	5
3	경멸하다	1	2	3	4	5	21	신나다	1	2	3	4	5
4	공포스럽다	1	2	3	4	5	22	쑥스럽다	1	2	3	4	5
5	기쁘다	1	2	3	4	5	23	우울하다	1	2	3	4	5
6	두렵다	1	2	3	4	5	24	유쾌하다	1	2	3	4	5
7	무섭다	1	2	3	4	5	25	자기혐오를 느끼다	1	2	3	4	5
8	무안하다	1	2	3	4	5	26	자책감을 느끼다	1	2	3	4	5
9	미워하다	1	2	3	4	5	27	죄책감을 느끼다	1	2	3	4	5
10	민망하다	1	2	3	4	5	28	즐겁다	1	2	3	4	5
11	부끄럽다	1	2	3	4	5	29	증오하다	1	2	3	4	5
12	분노하다	1	2	3	4	5	30	창피하다	1	2	3	4	5
13	분하다	1	2	3	4	5	31	행복하다	1	2	3	4	5
14	뿌듯하다	1	2	3	4	5	32	혐오스럽다	1	2	3	4	5
15	서글프다	1	2	3	4	5	33	화나다	1	2	3	4	5
16	성취감을 느끼다	1	2	3	4	5	34	흥겹다	1	2	3	4	5
17	수줍다	1	2	3	4	5	35	흥미롭다	1	2	3	4	5
18	수치스럽다	1	2	3	4	5							